優秀作　林田典子さん

TOPIK를 극복해서 손에 잡은 것

마에다 아키코

TOPIK 6급을 쉽게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이나 같은 급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몇 번을 시험을 봐도 똑같이 5급,심지어 점수가 점점 떨어져간다.그것이 계속되면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고,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한국어 학습 따위는 그만두려고 생각하는데 아침이 오면 또 음독 연습을 하고,결국은 그만둘 수가 없다.딜레마에 빠져 있었다.나의 TOPIK 6급까지의 길은 정말 멀었다.공부를 계속하면서도 전혀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그런데 매년 2번씩 가는 단기연수에서는 반년 전과는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말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났다.

그렇게 일희일비를 반복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는 정말 합격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언제까지나 합격하지 못다는 자신을 싫어졌다.그때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다. “그래,읽기하고 듣기에서 만점을 받으면 돼!”라고.
내 발목을 잡던 ‘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했지만,다르 것에서 만점을 받으면 ‘쓰기’에서는 단 30점만 받으면 된다.30점이면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한 달 정도에 걸쳐 기출문제 한 회분의 스크립트를 전부 베껴 썼다.

‘읽기’와 ‘듣기’는 문제를 풀고 나서 스크립트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써 나갔더니 놀랄 만큼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왔다.지금까지는 잘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민거리인 ‘쓰기’는 30점이면 괜찮다고 해도 아무 준비도 없이 시험을 보는 것은 무모할 것 같았다. “HOT TOPIK”의 모범 답안을 꼼꼼히 읽고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내 경우, ‘~ 란’이라고 쓰기 시작하면 훨씬 쓰기 쉬워졌다.

그리고 하나 더 떠오른 생각은 “한국어 월드를 만들자!”였다.단기연수 등 한국에 갔을 때는 계속 뉴스를 켜 놓고 길을 묻거나 주문을 하거나,억지로라도 한국어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한다.그런데 일본에서는 숙제와 음독만 하면 공부했다는 기분이 든다.이러다가 합격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누구나 생각할 법한 일이지만,’ 한국어 월드’라고 이름을 지어 내 주변을 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예를 들면 전철에서 읽을 것은 소설이든 스마트폰으로 읽는 기사든 다 한국어로 읽기로 했다.전철에서는 생각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마지막에는 작문도 쓰고 몰래 음독까지 하고,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접했다.한국어가 들려오면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기사회생을 노리고 TOPIK 시험에 임했다. ‘듣기’는 평소에 1.2배속으로 듣는 덕에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읽기 연습’은 ‘듣기’의 보기를 읽을 때에도 효과를 보여줘,빠르고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었다.’ 읽기’에서는 답안을 다시 확인하는 여유까지 생겼다. 그리고 그 ‘～란’ 덕분에 ‘쓰기’도 넘겼다.

그 결과는……만점은 못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점수로 합격했다.드디어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돌 위에서도 3년’이라고,차가운 돌 위라도 3년 앉아 있으면

따뜻해진다는 그 속담의 뜻처럼,내가 헤매던 그 3년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TOPIK은 단순한 어학 시험이기에 큰 성과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하지만 이 합격은 나에게 자신감은 주었다.그것은 한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작은 자신감을 준 큰 한 걸음이 되었다.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실력으로 착실히 결실을 맺을 것이다.